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4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8.

발 의 자 : 정준호 · 조계원 · 양부남
백선희 · 박용갑 · 임호선
복기왕 · 문진석 · 이소영
맹성규 · 최혁진 · 한준호
정진욱 · 염태영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, 복귀자 1인당 1,300만원(중견기업은 900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한함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규정은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복귀 후의 업무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어, 육아휴직 복귀자를 채용·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1,300만원(중견기업 900만원)에서 1인당

1,500만원(중견기업 1,100만원)으로 인상하고,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함(안 제29조의8제5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, “1,300만원”을 “1,500만원”으로, “900만원”을 “1,1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8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 ~ ④ (생략)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육아휴직 복귀자”라 한다)을 <u>2025년 12월 31일</u> 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인원에 <u>1,300만원</u> 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<u>900만원</u>)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략) ⑥ ~ ⑨ (생략)	제29조의8(통합고용세액공제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<u>1,500만원</u> ----- ----- <u>1,10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⑥ ~ ⑨ (현행과 같음)